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A Bibliographical Study on *Daebanggwangbul-Hwaomgyeongso*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오 용 섭 (Oh, Yong-Seob)**

◁ 목 차 ▷

1. 서 언	3.3 용복사본
2.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수입과 사급	3.4 송광사본
3.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3.5 기타
3.1 청계사본	4. 결 언
3.2 귀진사본	<참고문헌>

< 초 록 >

이 글에서 논하는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정원(1011~1088)이 징관(738~839)의 주석을 바탕으로 120권으로 엮은 『대방광불화엄경』 주석서를 말한다.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이 주석서를 송나라의 정원에게 요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900여 목판이 고려에 수입되었다. 그러나 조선 세종은 해인사 대장경판 대신에 이 수입목판을 일본에 사급하였다. 이후 이 불서는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청계사, 귀진사, 용복사, 송광사 등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현재 이 판본들은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고, 더욱이 송광사 목판은 대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첫 판본인 청계사본부터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에 이르기까지 각 판본의 간행과 특징에 대해 살폈다. 그래서 각 판본의 간행사실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늦게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영각사본과 운부사본은 독자적인 판본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한제국의 궁녀들이 한글로 사성까지 하는 조선시대 주요한 불서의 하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要語: 대방광불화엄경, 화엄경, 정원, 의천, 강석덕, 보우, 혜순, 각성, 청계사, 귀진사, 용복사, 송광사, 영각사, 운부사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uki@inu.ac.kr)

접수일: 2018년 11월 18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5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5일
서지학연구, 제76집, 135-158,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135>)

<ABSTRACT>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consisting of 120 volumes organized by Jing yuán (1011~1088) is a annotation book about the Avatamska Sutra. He added a small supplement to annotation of Ch'eng kuan (738~839). A Goryeo Buddhist monk named Daegak Guksa Uicheon (1055~1101) asked Jing yuán for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during China's Sung Dynasty. Before long, he received about 2,900 wood blocks.

However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bestowed these 2,900 wood blocks to Japan instead of the Tripitaka Koreana. Since then,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was published by Cheonggyesa Temple, Gwijinsa Temple, Yongboksa Temple and Songgwangsa Temple in Korea from 15th century to 17th century. Some of these printed copies published by several temples still remain present. Also most of the wood blocks engraved by Songgwangsa Temple exist at just the temple.

In this paper, I have researched several books printed from the wood blocks at the above temples.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rocess of engraving on wood blocks and each of their characteristics. Also wood blocks engraved by Yeonggaksa Temple and Unbusa Temple were not done independently but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wood blocks engraved by Songgwangsa Temple. And I have learned that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is a major Buddhist scripture of the Joseon Dynasty copied in the court style of the Korean script by several court ladies of the Korean Empire.

Key words: *Daebanggwangbul Hwaeomgyeong*, *Hwaeomgyeong*, Jing yuán, Uicheon, Gang-seokdeok, Bowoo, Hyesun, Gakseong, Cheonggyesa, Gwijinsa, Yongboksa, Songgwangsa, Yeonggaksa, Unbusa

1. 서 언

이 글에서 논하는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실차난타(651~710)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80권)에 대해 송나라의 쥘수 淨源(1011~1088)이 징관(738~839)의 주석을 바탕으로 120권으로 엮은 것을 말한다. 이 주석서는 “『대방광불화엄경』의 經, 疏, 傳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학자들이 『대방광불화엄경』을 학습하는 데 편리하게 되었다.”¹⁾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고려의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은 이 『대방광불화엄경소』를 송나라의 정원에게 요청하였고, 마침내 2,900여 판의 목판으로 고려에 수입되었다. 이 목판은 국내에 수입된 이후 의천이 출가한 개성의 靈通寺에 줄곧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이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신편제종교장총록』에 편입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천이 주도한 敎藏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⁵⁾ 마침 조선개국 이후에 일본이 해인사의 대장경판을 끈질기게 求請하자 세종 6년(1424)에 대장경판 대신에 다른 밀교대장경판과 함께 이 목판을 일본에 賜給하게 된다.⁶⁾

이후 국내에서 『대방광불화엄경소』에 대한 요구는 수차례의 판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일본에 사급한 지 20년이 되는 세종 26년(1444) 11월 이전에 경기도 광주의 청계사에서 간행된 뒤 명종 11년(1556)부터 명종 19년(1564) 사이에는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 인조 6년(1628)부터 인조 9년(1631) 사이에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 인조 11년(1633)부터 인조 13년(1635) 사이에는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후 숙종 12년(1686)에 경상도의 함양 영각사와 영천 운부사에서 송광사 목판의 결판을 보완하고, 자신들의 인경사실을 권미에 덧붙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모두 120권이나 되는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은 물론 소요되는 물자까지 그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의 사찰에서 계속하여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였다는 것은 이 불서에 대한 요구가 전국적이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각 판본들은 그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고, 송광사 목판은 대부분이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 판본은 일부만 전하는 데다 송광사 목판 역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
- 1) 陳景富, “義天入宋求法活動及其弘法業績”, 『天台學研究』 2輯, 天台佛教文化研究院(2000), 39.
『대방광불화엄경소』는 『洪武南藏』 외에 『新纂卍續藏』, 『卍大日本續藏經』, 『卍續藏經』 등에 수록되어 있다.
 - 2) 제1행 아래에는 80권본의 권차를 병기해 놓아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조선시대 간본들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 3) 고려 공민왕 21년(1372) 9월에 인출할 때와 세종 5년(1423) 일본에 이 목판을 사급하기 위해 수송할 때까지 영통사에 보존되고 있었다.
 - 4) 『新編諸宗敎藏總錄』 卷1. “大疏注經一百二十卷(淨源移清涼大疏注於經下).”
 - 5)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京都: 便利堂, 1937), 102-103.
오오야 도큐조(大屋徳城)는 “조선 세종 때 일본으로 사급된 주화엄경판이 신주화엄경판, 소식이 말한 협주화엄경판, 강석덕이 일컬은 청량소판과 동일하다.”고 하면서 이 목판은 대각국사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敎藏(續藏)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았다. 아마 홍왕사본만을 교장(속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교장 목판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6) 『세종실록』 23권, 6년 1월 8일. “上遣護軍尹仁甫, 諭圭籌等, 賜密敎大藏經板, 注華嚴經板, 大藏經一部.”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에 대해서는 그 개략만 이해되고 있었을 뿐 판본이나 간행, 계통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현재 『대방광불화엄경소』 인본은 간기가 없는 권의 경우, 판본 구분이 되지 않은 채 권질이 혼성되어 전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흩어져 전하는 여러 판본과 목판의 일부까지 살펴,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경위와 특징 등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2.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수입과 사급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의천이 敎藏의 간행을 위해 송나라의 정원에게 요청함으로써 국내에 수입되었다. 이 사실은 선종 4년(1087) 3월에 “송나라 상인인 徐戩 등 20명이 신주화엄경판을 바쳤다.”⁷⁾는 우리 측의 기사와 “은 3,000량을 받고 협주화엄경 2,900여 편을 새겨 고려에 보냈다.”는 蘇軾의 기록⁸⁾에서 확인이 된다. 송나라에서 바쳤다는 신주화엄경판이나 고려에 보냈다는 협주화엄경 2,900여 편이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소』 수입목판이다. 이 『대방광불화엄경소』에 대해 국내에서는 신주화엄경, 협주화엄경, 대소주경, 주화엄경, 화엄경소주 등으로도 일컫는다. 현재 수입목판으로 찍은 인본들이 국내외에 전하는데 국내 소장본의 경우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⁹⁾ 그런데 최남선이 일제강점기 때 실상사를 방문한 기록에서 “그 腹藏에 고려판 화엄경소 같은 稀書도 몇 가지 끼어 있다.”¹⁰⁾고 한 것으로 보아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불복장으로 전하는 권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방광불화엄경소』가 국내에 전래된 이후, 고려에서 판하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간행한 바 있었다. 곧 대장경을 조성 중이던 고려 고종 28년(1241) 5월에 가야산 하거사에서 간행하였던 것이다.¹¹⁾

-
- 7)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4년 3월 갑술. “宋商徐戩等二十人來，獻新註華嚴經板.”
『고려사절요』 권6, 4년 3월, 선종 4년(1087) 3월. “宋商徐戩等二十人來，獻華嚴經板.”
- 8) 『東坡奏議』 권6, 論高麗進奉狀. “元祐4年(1089) 11月 3日, 一. … 徐戩先受, 高麗錢物, 於杭州, 彫造夾注華嚴經, 費用浩汗, 印板既成, 公然於海舶載去交納, 却受本國厚賞, 官私, 無一人知覺者.”
『東坡奏議』 권8, 乞禁商旅過外國狀. “元祐5年 8月 15日 … 去年(1089) 11月23日奏, 泉州百姓徐戩 … 爲高麗國, 雕造經板二千九百餘片, 公然載往彼國, 却受酬荅, 銀三千兩.”
- 9) 송나라에서 수입한 목판으로 찍은 인본이 제법 현전하고 있다. 현재 권42(제891호), 권28, 29, 30, 100, 101, 102(제892호), 권41(제964호), 권68(제1013호), 권84, 100, 117(제1106호), 권30(제1124호), 권21, 24(제1128호), 권48, 64, 83(제1409호), 권4, 12, 19, 20, 26, 33, 37, 40, 42, 46, 49, 51, 54, 55, 57, 61, 62, 63, 69, 71, 72, 77, 81, 82, 86, 91, 94, 95, 97, 99, 102, 104, 105, 106, 107, 109, 111, 112, 113, 114, 116 등 41첩(제1707호) 등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필자는 근자에 미국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권80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10) 최남선(백운향도), 『尋春巡禮』(邊山の 四大寺) (京城: 白雲社, 1926), 79. “그 복장에서 孝寧大君의 願文과 한 가지 古寫經及古印經 不知幾百卷이 나왔는데, 더러는 盜難을 당하고 아직 그 大部를 高丈餘되는 한쌍 櫃에 석줄씩 잔뜩 裒藏하여 있다. 대개는 海印本の 諸宗經論이요, 그 밖에도 高麗板華嚴經疏 같은 稀書도 몇 가지 끼어 있다.”
- 11) “辛丑年(1241)五月 日伽椰山下鉅寺 彫造.”

이 일은 용수사의 비구 玄揆가 주도하고 하거사의 天章 등이 맡았으나¹²⁾ 당시 전권을 간행한 것 같지는 않다. 현재 해인사에 목판 57판이 전하는데 20행15자의 권자본형식¹³⁾이다.

한편 공민왕 21년(1372) 9월에는 영통사에 보관된 수입목판에 변상도가 없는 것을 한으로 여겨 변상도를 새로 새겨 인출한 인본이 현전하고 있다.¹⁴⁾ 이 인본의 인쇄 상태가 이전의 것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판은 수입된 지 285년이나 지난 1372년까지 대체로 잘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수입목판은 계속 개성의 영통사에 보관되어¹⁵⁾ 있었으나 세종 5년(1423)에 일본 승려 圭籌 등이 대장경판을 구청하자, 세종은 그 이듬해 元묘에 “대장경판은 우리나라에는 오직 한 본만이 있어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¹⁶⁾고 하면서 “밀교대장경판, 주화엄경판과 대장경 1부”¹⁷⁾ 등을 그 대체품으로 賜給하였다. 이 주화엄경판은 “의천화상께서 국명으로 송나라에 청해 바다건너 왔다.”¹⁸⁾고 한 박안신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송나라에서 수입한 목판이었다. 이렇게 송나라에서 수입한 목판은 조선 세종 때 일본에 사급된 뒤 교토(京都)의 쇼코쿠지(相國寺)에서 보관 중에¹⁹⁾ 두 차례의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3.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조선에서는 이 화엄경 주석서가 긴요하였던지 일본에 사급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간행되는 데, 당시의 일은 강석덕의 “화엄경발”²¹⁾에 밝혀져 있다. 이후에도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여러 사찰

12) 2卷末. “龍壽寺, 社堂比丘, 玄揆主張, 下鉅寺道人, 天章戒湛勸緣, 道人, 聞契校勘.”

13)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431-2. “이 목판은 국보 제206-18호로 여래출현품만 별도로 57판에 새긴 것이다. 목판은 마구리와 판 사이에 베를 바르고 그 위에 옷칠을 한 매우 정성을 기울여 제작된 판이다.”

14) 보물 제964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1, 卷頭, 李美沖·朴成亮·金師幸. “刻注華嚴經變相圖緣起”, “所恨但無此變相, 某等且依古範, 募工彫板, 留于五冠山靈通寺, 印施無窮者. 洪武五年(1372)壬子九月日.”

15) 『세종실록』 22권, 5년 10월 25일. “傳旨于留後司曰: …靈通寺 華嚴經等板子 …以水站船隻載送.”

16) 『세종실록』 23권, 6년 1월 1일. “殿下曰: 大莊[藏]經板, 只一本也, 不可賜.”

17) 『세종실록』 23권, 6년 1월 8일. “…賜密教大藏經板, 注華嚴經板, 大藏經一部.”

18) 『세종실록』 26권, 6년 12월 17일. “安臣等啓曰: …注華嚴經板, 則上世宗師, 大覺和尚, 以國命, 請于宋朝, 浮海以來, 其古今神異之跡, 不可備論.”

19) 『세종실록』 26권, 6년 12월 17일. “安臣等啓曰: …遂與圭籌等, 五月二十一日到京, 館於城北深修菴, 輸藏經與木板, 置于相國寺.”

20) 『相國寺史料編年集成』, 同志社大學 歷史資料館館報 第15号, 11, 21.

[1425年 8月] 十四日 晴. 未初刻, 相國寺ノ塔頭, 乾德院燒失. 其余炎ニ常德院, 雲頂院, 鹿苑, 并寺内七堂以下, 方丈, 文庫, 鐘樓, 一字モ不殘, 悉燒失(『滿濟准后日記』同日條).

同年(1467) 十月, 三日卯刻, 敵軍攻寺, 從庫堂出火, 七堂并東方諸院·鹿苑, 一時爲焦土, 同四日午刻, 西方諸院, 始于雲頂, 終于大德, 皆燬兵矣(『扶桑五山記』93. 玉崖和上).

21) 姜碩德, “華嚴經跋”(『東文選』卷103). “凡經書, 跋以明其義, 板以壽其傳. 苟無此二事, 道之寓諸文字者, 固無以顯揚流通. 此義學之徒, 所深病也. 吾東方清涼疏板, 乃高麗大覺國師, 西遊趙宋時, 獲之. 今已歸日域, 學者無復

에서 계속 간행되었다. 곧 명종 11년(1556) 6월 이전부터 명종 19년(1564)년 3월 사이에는 황해도 서흥의 귀진사, 인조 6년(1628) 8월경부터 인조 9년(1631) 12월 사이에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 인조 11년(1633) 8월부터 인조 13년(1635) 5월 사이에는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에서 간행되었다. 또한 숙종 12년(1686)에는 경상도의 함양 영각사와 영천 운부사 등에서도 송광사본의 결판을 보완하고 인출하였다.

이렇게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들은 어느 판본이나 완질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간행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이 사찰본들은 번각본이어서 간기가 없는 권은 판본의 구분이 쉽지 않아 뒤섞여 있기도 하다.²²⁾ 다행히 근자에 복장에서 새로 발견된 판본들이 있었고,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 판본의 소장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으로써²³⁾ 각 판본의 간행경위와 특징을 이전보다 자세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다.

3.1 청계사본

淸溪寺本은 강석덕(1395~1459)이 “화엄경발”에서 소개한 판본이다. 청계사주지를 지낸 覺頓이 실무를 주도하였고, 목판이 완성된 이후에는 청계사에 수장되었다. 당시 판각장소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청계사에서 주도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계사본이라고 하였다. 당시 간행하게 된 배경은 대각국사가 중국에서 얻어 온 판본은 이미 일본에 주어버렸으므로 학자들이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발문은 길지 않으나 간행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선사 信浩가 처음 목판을 새길 뜻을 세움
- ② 신희가 申孝昌(1364~1440)²⁴⁾에게 뜻을 말하니 신희창과 그의 아들 自謹이 함께 목판을 마련하여 245판을 새기던 중 신희창의 사망으로 중단됨
- ③ 세종의 장모인 三韓國大夫人 安씨(?~1444)²⁵⁾가 임금과 왕비의 만세와 자손들의 영원 무성을 기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계속함
- ④ 慶貞公主(?~1455)²⁶⁾, 孝寧大君(1396~1486)과 부인 鄭씨가 성의를 다하여 도와 일을 마침

得見。爰有禪師信浩，遂立刊板志，告齊靖申公孝昌，齊靖與其男自謹，辦材鳩工，纔刊二百四十五板，齊靖已捐館矣。於是，三韓國大夫人，安氏，深慨盛舉，不啻一 蕘之虧，爲大檀門，復續厥緒，以祈兩宮萬歲，金枝永茂。於是，慶貞公主，孝寧大君，暨同室鄭氏，盡心扶樹，以竟大事。又有判樞成公達生，從而贊助，其他隨喜者無算，及此主幹良緣者，苾芻覺頓也。前後所雕，共一千四百七十板。就廣州治西，青龍山淸溪禪寺，構堂藏之，額曰雜華，以垂無窮。竊惟，諸尊勝家，傾貨產，無疲怠，克就大事之功也之德也，巍乎嵩華，莫能並其高，淵乎河海，不足喻其深，而後乃今學其學者，目其書，心其義，儻能體會，菩提場中，遍照尊之不傳之妙。於開卷頃，眼瘼消盡，心花開發，焉知壽君福國。利幽冥者。盡從這裏，流出去也。豈容擬議，於其間哉？”

22)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554호인 “하동 청계사 대방광불화엄경소”(119권40책)는 귀진사본과 송광사본의 합질임.

23)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2013)』,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4) 『세종실록』 76권, 19년 3월 20일. “遷給申孝昌職牒，孝昌孫女適廣平大君 璵，外孫女適臨瀛大君 璆.”

25) 『태종실록』 36권, 18년 8월 10일. “以沈溫，爲青川府院君，溫妻安氏，爲三韓國大夫人.”

- ⑤ 판중추 成達生(1376~1444)²⁷⁾이 찬조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회사함
- ⑥ 이 일의 책임자는 각돈입²⁸⁾
- ⑦ 경판 수는 1,470판임
- ⑧ 廣州²⁹⁾ 靑龍山 淸溪禪寺의 판전에 보관하고, 판전의 편액은 “雜華”라고 함

강석덕이 이 발문을 쓴 시기는 참여한 인물들의 사망 시기를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곧 처음 판각을 시작하였던 신호창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되었다고 한데다 齊靖이라는 신호창의 시호까지 쓰고 있으므로 신호창이 사망한 1440년 8월³⁰⁾ 이후가 분명하다. 그런데 삼한국부인 안씨는 1444년 11월,³¹⁾ 성달생은 1444년 4월에 각각 사망하였다.³²⁾ 그러나 이들의 사망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발문을 지은 시기는 1440년 8월 이후 늦어도 삼한국대부인 안씨가 사망한 1444년 11월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석덕이 이 글을 지은 시기는 세종 22~26년(1440~1444)으로 볼 수 있고, 판각의 완성도 직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각이 완성되자 청계사의 판전에 “雜華”라는 편액을 달고 이 목판을 收藏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계사본이란 신호창이 주도하여 1440년 8월까지 완성한 245판과 삼한국대부인 안씨가 주도하여 1444년 11월 이전에 완성한 1,225판³³⁾ 등 모두 1,470판이 그 대상이 된다.

강석덕은 발문에서 판본의 완성과정과 목판의 수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곧 강석덕이 밝힌 전체 목판수는 1,470판으로 수입목판 2,900여 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목판의 양면에 판각하였을 것이므로 번각하거나 1장당 행자수가 동일하다면, 청계사본과 수입판본의 전체 장수는 동일할 것이다. 근자에 충남 예산의 수덕사 塑造如來坐像의 복장에서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79-81, 권91-93 등 6권2책이 공개되었다.³⁴⁾ 이 판본은 판심이 없는 20행15자의 형식으로 수입목판본과 동일하다.³⁵⁾ 또한 네 테두리가 수입목판본보다 굵다는 차이는 있으나 권79-80, 권91

26) 태종의 제2녀이자 조준의 아들인 趙大臨의 처.

下季良, 『동문선』 제121권, 碑銘. “有明贈諡恭定朝鮮國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獻陵神道碑銘并序, “次慶貞公主, 下嫁平壤府院君趙大臨.”

『세종실록』 49권, 12년 9월 12일. “平壤府院君, 趙大臨卒, … 癸未, 拜護軍, 冬, 尙慶貞公主, 封平壤君, 丙戌, 改平壤君.”

27) 『세종실록』 91권, 22년 12월 3일. “成達生, 判中樞院事.”

28) 황인규는 “한국불교사의 순교승”(『불교평론』 2008봄)에서 『세종실록』 등의 기사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각돈은 청계사와 진관사 주지로써 진관사 수륙사를 중창하였다. 그는 선사 信浩와 더불어 화엄경판 1470판을 완성하여 靑龍山 淸溪禪寺에 집을 짓고 수장하는 등 왕실의 존경을 받았지만 유생들은 그가 재산을 축재하고 사통하였다고 하여 하옥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覺頓은 사통하였다는 죄명으로 성종 8년 12월 사형을 당하였다.”

29) 현재 경기도 의왕시.

30) 『세종실록』 90권, 22년 8월 6일. “前都摠制, 申孝昌卒, … 有子曰自謹, 自敬, 自守.”

31) 『세종실록』 106권, 26년 11월 24일. “三韓國大夫人 安氏卒.”

32) 『세종실록』 104권, 26년 4월 10일. “判中樞院事, 成達生卒.”

33) 삼한국대부인 안씨가 주도하여 판각한 목판의 수가 1,225판이나 되므로 이보다 최소한 2-3년 전에 판각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4) “수덕사 불상서 고려가 직접 제작한 ‘보물급 불경’ 나왔다,” 『경향신문』(2018.10.31.) 외 다수.

등 세 권을 서로 대비하면, 수입목판본의 번각임이 드러난다. 판수제도 『注華嚴經』, 『注花田經』, 『注華嚴』, 『花田經』, 『華田經』, 『注經』 등으로 일정하지 않은데, 수입목판본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덕사 소조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되어 공개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여러 점에서 수입 판본을 번각한 청계사본임이 거의 분명해진다.³⁶⁾ 다만 비교대상 권수가 적은데다 달필자인 성달생 등이 찬조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판본이 발견된다면 전반적인 특징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 청계사본은 이후 귀진사본의 번각대본이 되었다.

한편 이 목판을 청계사에 보관하게 된 것은 판각실무를 주관하던 각돈이 주지로 있었고,³⁷⁾ 왕실의 후원을 받던 사찰이자³⁸⁾ 당시 간행 실무를 맡은 사찰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청계사는 고려말기에 후일 조선의 왕사가 된 무학이 주지로 있었고,³⁹⁾ 태종 7년(1407)에는 명산대찰이나 山水勝處의 대찰로 각 읍에 두는 자복사의 하나⁴⁰⁾가 된 사실에서 보듯이 수도권 지역의 주요사찰이었다.

3.2 귀진사본

歸眞寺는 황해도 서흥의 고덕산에 있는 사찰로 星宿寺,⁴¹⁾ 歸進寺, 鬼進寺라고도 하였다. 사찰명과 산명에 대해서는 여러 읍지를 통해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는데, 비교적 앞선 시기의 『서흥지』에는 “귀진사는 울리방에 있는데 고덕산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30리가 된다. 혹 본래 성숙사라고 한다.”⁴²⁾ 또한 “고덕산은 승덕산이라고도 하며 울리방 중심에서 북쪽으로 30리에 있다.”⁴³⁾고 하였다. 귀진사와 고덕산을 歸進寺, 鬼進寺와 崇德山이라고 일컫는 기록은 여러 읍지뿐 아니라 귀진사에서 간행한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권말간기에도 찾을 수 있다.⁴⁴⁾ 이렇게 귀진사는 처음 성숙사의 一院에 불과

35) 정각, “수덕사 소조(塑造) 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성보문화재: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학술대회』, 2018. 11. 3), 7. “수덕사 소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소는 “20행 15자가 새겨진 경판으로부터 종이 1장에 10행씩을 찍어 2장씩을 인출한 후 반으로 접어둔 형식이다.” 수입판본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8-30, 권100-102(보물 제892호)에 대한 유물해설(『국가문화유산포털』). “원래의 나무판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한판에 20줄의 글자를 새겼는데, 10줄씩 나누어 닥종이에 찍어 냈다.”

36) 이 판본을 고려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목판이 국내에 보존되고 있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 9월 이전에는 새로 판각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판각하더라도 수입목판을 일본에 사급한 세종 6년(1424) 1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 『단종실록』 6권, 1년 6월 24일 기유. “囚僧覺頓于獄…嘗爲淸溪寺菴主, 能董治作役.”

38) 황인규, “청계산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 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39집(2013. 2), 271, 276. “청계사의 산내암자인 원통암이 세종비인 소헌왕후와 제8남 영응대군의 원당이었던다는 점도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39) 李崇仁, 『高麗國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淸溪寺自超, 淸溪寺祖禪.” 李穡, 『高麗國平壤道延山府妙香山安心寺石鐘之碑』. “前淸溪寺住持, 普覺圓明無爲眞靜廣濟大禪師, 無學自超.”

40) 『세종실록』 7권, 2년 1월 26일.

41) 『輿地圖書』 下, 黃海道 瑞興, 寺刹(『한국사료총서』 제20집). “星宿寺, 在高德山. 一名歸眞寺.”

42) 申常顯, 『瑞興誌』, 寫本(U.C.Berkeley 소장), [1828], 寺刹. “歸眞寺, 在栗里坊, 高德山府治, 北三十里, 或云本星宿寺.” 이 사본에 수록된 채색의 瑞興地圖에는 歸眞寺가 栗里坊 인근 高德山 아래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본은 선생안에 李游가 1827년에 서흥부사로 부임한 사실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고, 1828년 7월의 申常顯의 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28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3) “高德山, 一名崇德山, 在栗里坊府治, 北三十里.”

하였지만 명종 때 普雨가 불경과 불서들을 간행하면서 독립적인 사찰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찰명도 초기에는 歸進寺, 鬼進寺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歸眞寺로 고착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던 시기에 귀진사는 중창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명종 18년(1563)경에 귀진사에서 간행된 『龍龕手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용감수경』 卷頭의 면지에는 위패모양 안에 “귀진사의 □□殿을 重創함에 億萬善緣이 同參하여 佛國에서 同生하자”⁴⁵⁾는 공덕문이 있다. 당시 여러 전각을 건축하였던 탓인지 “歸眞寺 □□殿”과 같이 전각의 이름부분을 비워 두었다. 당시 큰 규모의 중창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다. 그러나 18세기 초기에 鄭瑜가 지은 귀진사사적비⁴⁶⁾에는 “계유년(1693)에 빈터만 남았다.”⁴⁷⁾고 할 정도로 중창된 지 한 세기가 지나면서 매우 쇠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웅전⁴⁸⁾ 등 기본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⁴⁹⁾ 일제강점기 때인 1928년에는 극락전을 보수하다가 천정에서 발견한 목판 2,000판⁵⁰⁾을 보관하기 위해 경관실을 신축하였으나 1957년에 극락전과 주악루의 보수와 함께 경관실(당시 칠성각)이 해체되었고, 2007년에는 극락전을 보수하고 이듬해에 극락전과 주악루의 단청을 새로 하였다.⁵¹⁾

귀진사에서는 1556년 6월 이전부터 1564년 3월까지 근 8년에 걸쳐 『대방광불화엄경소』 전권을 간행하였다.⁵²⁾ 이 판본들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부산 범어사, 보은 범주사,⁵³⁾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등 사찰 등에 소장되어 있다.⁵⁴⁾

귀진사에서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한 주도자들과 시기는 권말에 있는 간행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최고 수장인 판선종사 도대선사이자 奉恩寺주지였던 普雨의 주도아래 판교종사

44) 권6 간기. “黃海道瑞興地嵩德山歸眞寺開板.”

권10 간기. “嘉靖三十六年丁巳孟秋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권12 간기. “嘉靖三十六年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鬼進寺開板.”

45) 『龍龕手鏡』(귀진사, 1563). “飯眞寺□□殿重創億萬善緣同參佛國同生功德文.”

46) 鄭瑜, 『歸進寺事蹟碑』(1709년 건립, 비문명은 북한에서 세운 표석에는 『귀진사기적비』로 되어 있음(『귀진사』(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103).

47) 鄭瑜, 『歸進寺事蹟碑』(『귀진사』(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77). “越三十年癸酉, 鞠爲□□, 遺墟獨存.”

48) 현재 극락전.

49) 『귀진사』(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28.

50)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서지학연구』 58집(2014), 465-495.

귀진사는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던 전후로 『묘법연화경』(1513, 1554), 『연경별찬』(1546), 『금강경오가해』(1558), 『용감수감』(1563), 『계초심학인문』(1572) 등을 간행하였다.

51)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30-31.

진봉희 외, 『북한의 전통건축: 황해북도 I』: 귀진사 극락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1.

52) 북한 측에서는 귀진사의 전후 불서 간행에 대해 대장경 간행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귀진사』(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12세기 중엽에 건립되었는데 처음 이름은 성숙사로 1562년에 대장전을 새로 짓고 보우대사의 주관으로 대장경 간행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53)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범주사, 192-193.

『전국의 사찰문화재자료집』: 충북 범주사, 대방광불화엄경소: 259.

54) 북한의 묘향산역사박물관, 사회과학원도서관, 인민대학습당 등에도 귀진사 판본이 결결로 다수 소장되어 있다.

도대교사 奉先寺주지인 天則, 奉先寺주지 雪梅, 前貝葉寺주지 乘雲, 前衍慶寺주지 靈雲, 화엄종 대교사 敬岑, 正陽寺주지 崇印·法慈, 前伽耶寺주지 法達, 月精寺주지 學向, 烟峯寺·神光寺·法興寺주지 玄敏, 正因寺주지 玄光, 月淨寺주지 道行, 深原寺주지 宗和, 銀海寺持音 儀正, 前檜岩寺주지 義下, 歸眞寺持任 信熙, 永燈寺주지 敬緝, 華藏寺·귀진사주지 釋熙, 前觀音寺持任 一暹, 前藥寺持任 熙元, 權化 性還 등과 교정을 맡았던 前正因주지 信玄⁵⁵⁾ 등의 노력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귀진사에서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한 주도자들은 禪敎의 수장을 비롯하여 전국 유명사찰의 주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우는 처음 관선종사 도대선사 봉은사주지의 직책으로 참여하였다가 1560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一雄에게 위임하였으나 다시 최고 수장이 되어 1564년 봄에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간선, 간선도인, 화사, 화주, 간선대화사 등은 玄秀, 日暹(一暹), 印禪, 處安, 釋珪(釋圭), 熙元, 釋熙, 能珠, 信仁, 儀聰, 學能 등이 연이어 맡았다. 초기에는 전 관음사 지임이었던 일삼, 중기에는 처안과 석규, 후기에는 귀진사 주지였던 석희 그리고 전 약사 지임이었던 희원의 수고가지대하였다. 각수⁵⁶⁾는 覺仁, 能惠, 大義, 道成, 道軒, 碧庵, 守衍, 乘雲, 信衍, 信惠, 信熙, 儀通, 一暹, 一庵, 一眞, 晶(正)還, 祖英, 祖允, 智衍, 智愚, 天雄, 竺玲, 學靈, 惠能, 惠衍, 惠正, 熙信 등과 월출암의 罔雄, 碧岩, 學下, 大義(大儀) 등이었다. 이 중에서 守衍과 祖英은 참여기록 횟수가 많으며, 월출암의 각수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관은 惠衍, 道堅, 靈熙(玲熙) 등이 맡았다.

간행기간은 <표 1>과 같이 1556년 6월 이전부터 1564년 3월까지 근 8년이 소요되었다. 간행 순서는 처음에는 권차 순으로 하였으나 권85가 권54보다 6개월가량 앞서 완성되는 등 판각한 지 5년이 지나서는 권차 순이 아니라 권을 나누어서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담 판각은 인근의 사찰에서 지원하고 있었었는데, 1560년 7월에 완성된 권38에는 “九月山 月出庵에서 開刊하여 歸眞寺에 두었다.”고 하므로 그 실례가 된다. 그런데 당시 보우의 권위라면 신속한 완성을 위하여 더 많은 사찰에서 판각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행처가 없는 1562년 1월에 완성된 권54와 귀진사에 목판을 두었다는 1561년 7월에 완성된 권47의 경우도 분담 판각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월출암 뿐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 이 업무를 분담하였을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근거는 명종 18년(1563)에 같은 사찰에서 간행한 『용감수감』의 간행기록이다. 곧 『용감수감』은 釋熙와 熙圓이 주역으로 참여하였으나⁵⁷⁾ 권3의 권말에는 당시 화엄종 中德으로 成佛寺 주지였던 法達가 監刊, 성불사 승려 人瓊이 개간, 권7-8의 권말에는 信仁이 간선도인으로 참여하였고, 권8의 권말⁵⁸⁾에는 귀진사에서 개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귀진사가 중창과 불서간행을 함께 하던

55) 권4.

56) 각수는 刊字, 自刊, 刻手, 刻字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57) 『龍龕手鑑』 권2 권말. “幹善道人 釋熙, 熙圓.”

58) “判禪宗事都大禪師兼奉恩寺住持[普雨], 大功德主判敎宗事都大敎師兼奉先寺住持天則, 嘉靖四十二年高德山 歸眞寺開板.”

시기에 인근의 월출암과 성불사도 함께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서 월출암은 권38의 권말에서 분담 판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당시 성불사 주지이자 전 가야사 주지였던 범달은 1563년 경에 귀진사본을 간행할 때 귀진사 지임의 소임으로 監刊에 참여⁵⁹⁾하였으므로 성불사도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사업에 함께 참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표 1> 귀진사본의 간기

권수	간기	간행연월
6	嘉清[靖]三十五丙辰六月 日黃海道瑞興地嵩德山歸眞寺開板	1556.6
10	嘉清三十六年丁巳孟秋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1557.7
12	嘉清三十六年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鬼進寺開板	1557.7
14	嘉清三十六年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1557.7
38	嘉清三十九年庚申孟秋日 黃海道文化地九月山月出庵開刊瑞興地歸眞寺留板	1560.7
47	嘉清四十年辛酉孟秋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留板	1561.7
50	嘉清四十年辛酉八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	1561.8
54	嘉清四十一年壬戌正月十八日華嚴經五十四卷	1562.1
85	嘉清四十年辛酉五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	1561.5
96	嘉清四十一年壬戌七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飯眞寺開板	1562.7
120	嘉清四十三年甲子春畢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眞寺開板	1564.1-3

한편 귀진사에서는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의 완성을 앞둔 명종 17년(1562)에 대장전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⁶⁰⁾ 이 대장전과 목판이 언제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姜浚欽(1768~1833)은 『三溟詩集』에서 귀진사의 板閣을 언급하고 있는데,⁶¹⁾ 그는 순조 11년(1811) 3월에 遂安郡守로 부임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19세기 초기까지 귀진사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판각과 함께 보존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목판은 20세기 전후의 인본으로 추정되는 동국대학교 소장본⁶²⁾으로 보아 이때까지 상당한 수의 목판이 전하고

59) 『대방광불화엄경소』(귀진사본), 권117 간기. “監刊華嚴宗中德前伽耶寺住持兼行歸眞寺持任法達.”

그는 전 가야사 주지의 직책으로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의 주역이었음.

60) 鄭瑜, 瑞興崇德山歸眞寺事蹟碑銘并序 ([리기용;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77. “...大藏殿, 則嘉清四十一年壬戌(1562)四月經始焉.”

그러나 신축한 대장전 이전부터 소규모이기는 하나 장판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1550년에 평양에서 간행한 『불조삼경』 목판을 이곳에 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佛祖三經』 卷末. “嘉清二十九年(1550)孟夏月日黃海道 瑞興地 歸進寺留板. 平安道 平壤府開刊.”).

61) 姜浚欽, 『三溟詩集』 五編. “歸眞寺贈昨師”, “洞口來尋寺, 溪邊已見僧, 山門千丈石, 板閣百年藤, 方外堪賓主, 人間少友朋, 禪宗猶近理, 千劫有傳燈.”

62) 동국대 소장본의 제1-8책(제1책의 권3, 제2책의 권6, 제3책의 권9, 제4책의 권12, 제5책의 권15, 제6책의 권18, 제7책의 권21, 제8책의 권24)의 마지막 면지 에는 인경당시 시주자와 大願이 묵서되어 있다. 제1책에는 “印經大施主, 尙宮淸信女, 乙酉生, 妙蓮花俞氏, 伏爲, 亡父乙丑生, 慶州后人俞氏, 亡母戊辰生, 恩津后人宋氏, 兩位靈駕.”, 제4책에는 “亡祖父, 慶州俞氏, 亡祖母, 丹陽張氏, 兩位.”, 제5책에는 “亡同生, 己丑生, 俞昌根靈駕.” 등의 내용이다.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종합하면 “을유생인 상궁 妙蓮花 俞氏가 돌아가신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사찰 보수 도중에 “『법화경』, 『화엄경』, 『십지론』, 『수륙문』, 『사십이장경』, 『부모은중경』 등의 판목 모두 2,000여 매”⁶³⁾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화엄경』을 비롯한 목판들은 “현재 일부가 묘향산 보현사 보존고에 보관되어 있다.”⁶⁴⁾고 한다.

귀진사본은 수입판본이나 청계사본과는 달리 판심과 어미가 있고, 반엽은 6행15자이다. 이러한 점만 보면 독자적인 판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계사본을 바탕으로 조성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⁶⁵⁾ 그래서 귀진사본에서도 수입판본의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귀진사본의 특징은 판각이 비교적 精緻하다는 점이다.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고, 흑구는 권119-120 등 일부 권을 제외하면 상하에 모두 있다. 그리고 네 둘레가 단변인 것도 있기는 하나 대개는 쌍변이며, 난외에 시주자 이름이 있다.

3.3 용복사본⁶⁶⁾

용복사는 경기도 삭령⁶⁷⁾에 소재한 사찰이었으나 현재寺趾만 알려져 있을뿐 사찰의 연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惠淳이 주도하여 1628년 6월부터 1643년 8월까지 26종 이상의 불서를 간행⁶⁸⁾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복사는 약 15년이라는 단기간에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한 사찰이었다. 그런데 당시 간행된 불서의 발문에서 “四教, 四集를 완성하였다.”⁶⁹⁾고 하였고, 간행된 불서 중에는 강원교재 성격이 많다. 아울러 서울 화계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전적 중에 1635년에 용복사에서 간행된 『염불작법』,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계품』 등의 앞표지에는 소미과를 뜻하는 “小弥”라고 쓴 흰색의 작은 籤紙가 있다. 함께 발견된 불서도 이와 비슷한데, 아마 강원교재를

먼저 죽은 동생의 명복을 빈다.”는 것이다.

63) 황해도교육회 편, 『황해도향토지』(경성: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37), 517-8. “『법화경』, 『화엄경』, 『십지론』, 『수륙문』, 『사십이장경』, 『부모은중경』 등의 판목 모두 2,000여 매가 있었다.”

64) 『개성직할시 귀진사』(『북한문화재해설집: 2, 사찰 건축편, 1998).

65) 후 1560년 7월에 월출암에서 간행한 권38의 말미의 간행사실에는 書寫 大義라는 직책과 인명이 있다. 이 서사라는 직책의 의미는 해당 면을 서사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될 것 같다. 그것은 이 권의 간행시기가 판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뒤의 일이고, 대의는 월출암에서 판각할 때 각수로도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66) 필자는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서지학연구』 63집, 2005)에서 용복사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1629년부터 1631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간행”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밝혔다. 이후 더 많은 용복사본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밝힌다.

67) 사지는 현재 경기도 연천(삭령은 남쪽의 연천과 북쪽의 철원에 걸쳐 있음)

68) 간행 순으로 본 26종은 다음과 같다. 『大慧普覺禪師書』,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禪源諸詮集都序』, 『高峰和尚禪要』, 『淸虛集』, 『禪教訣』, 『心法要抄』, 『大方廣佛華嚴經疏』,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妙法蓮華經』(1631, 163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金剛般若波羅蜜經』(1632.7, 1632.9), 『雲水壇』, 『禪家龜鑑』, 『禪教釋』, 『誠初心學人文』, 『大方廣圓覺偈多羅義經』, 『說禪儀』, 『靈山大會作法節次』, 『念佛作法』,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天地冥陽水陸雜文』, 『禪門拈頌集』, 『楞伽阿跋陀羅寶經』, 『釋迦如來行蹟頌』, 『天台末學雲默和尚警策』.

69) 『高峯和尚禪要』(용복사, 1628.9), [跋文]. “夫大化士惠淳師者, 仁智人也. … 諸經板本之大願, 割己儲盡傾, 兼募塵財, 未經二三歲, 而能成四教四集之外, 梵網戒經之板本, 印施.”

복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용복사는 17세기 전반기에는 강원이 설치된 규모가 있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용복사본⁷⁰⁾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⁷¹⁾ 서울의 칠보사와 지장암⁷²⁾, 김천의 직지사, 아산의 운정사⁷³⁾ 등에 전하고 있다. 이 판본들을 통해 간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권2-51까지는 권차 순으로 새긴 것이 확인되므로 권1은 권2보다 몇 개월 앞선 1628년 8-9월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용복사본은 1628년 8월경부터 1631년 12월까지 3년 5개월에 걸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복사의 간행기간은 귀진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빨리 간행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체 관하본을 마련하지 않고 귀진사본을 번각하였기 때문이다. 용복사본도 가장 늦게 간행된 권58은 마지막 권120보다 정확하게 1년이 늦은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권차 순으로 판각하다가 이후 권을 나누어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 용복사본의 간기

권수	간기	간행연월
2	崇禎元年戊辰(1628)孟冬朔寧地水淸山龍腹寺開板	1628.10
6	崇禎二年己巳(1629)潤四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刊	1629.윤4
7	崇禎二年己巳(1629)五月 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板	1629.5
12	崇禎二年己巳(1629)五月日京畿朔寧地水淸山龍腹寺開刊	1629.5
14	崇禎二年己巳(1629)五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板	1629.5
23	崇禎二年己巳(1629)五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刊	1629.5
26	崇禎三年庚午(1630)三月日	1630.3
38	崇禎三年庚午(1630)六月日龍腹寺開板	1630.6
51	崇禎三年庚午(1630)十二月日	1630.12
54	崇禎二年(1629)己巳五月日京畿朔寧地龍腹寺開板	1629.5
56	崇禎四年辛未(1631)十一月日	1631.11
58	崇禎四年辛未(1631)臘月日終	1631.12
62	崇禎四年辛未(1631)月日	1631
70	崇禎四年辛未(1631)五月 日	1631.5
120	崇禎三年庚午(1630)十二月日京畿道朔寧郡地水淸山龍腹寺開刊	1630.12

70) 이 중에서 서울의 칠보사와 지장암, 김천의 직지사 소장본은 실사하였고, 보은 법주사와 아산 운정사 소장본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71) 인출시기가 다른 37책(253), 33책(254), 6책(258) 등이 낙질로 전한다.

72) 지장암 목조비로자불좌상 복장전적은 『화엄경소』라는 명칭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9-1호(2008.7.10)로 지정되어 있다.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아주 정성껏 인쇄하고 장책된 인본이다.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釋迦毘盧佛願文에 따르면, “1622년에 광해군비유씨(章烈王后)의 발원으로 비로자나불, 석가여래 등 11구의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때 조성된 비로자나불 1구(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1621호)와 석가여래 1구(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2004호)에 각각 12책, 13책이 복장되었던 것이다. 이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쪽염을 들인 紺色 구름문양의 비단표지에 석황으로 『華嚴經』이라는 서명과 권수를 써놓았는데, 조선 중기 불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책방식이다.

73) 印經墨書: 康熙八年己酉(현종10, 1669)四月日造成.

당시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은 혜순의 지휘아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한 각수⁷⁴⁾들은 戒能, 当浩, 德玄, 靈什, 靈浩(靈湖), 妙安, 密英, 密玄, 法尙(法相), 法哲, 雪浩, 性甘, 性浩(性湖), 崇祐, 英俊, 玉連, 元德信, 柳淵, 印器(印己, 印機), 一玄, 祖云, 仲益, 處俊(處准), 忠益(冲益), 緇密, 學罔, 學修, 學衍, 學耳, 學日(學一), 惠双, 弘信 등이었다.⁷⁵⁾ 이 중에서 밀영, 밀현, 범상, 처준, 학수, 학연 등은 6회, 충익은 7회나 보이는 것으로 보아 참여도가 높은 각수였다. 연관은 儀雄, 印天, 天敏 등이 맡았고, 朴四海 兩主는 勞夜匠으로 참여하였다. 노야장이라는 직책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으나 야간에 실무 또는 지원업무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당시 관각작업은 야간까지 계속할 만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방의 공인들이 부르지 않아도 왔고, 그 중에서 뽑은 최고의 공인 30명은 (보수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에도 멈추지 않고, 5~6년이 걸려 끝을 보았는데 아침저녁으로 하루도 멈춘 일이 없었다.”⁷⁶⁾는 彦機의 글과 일치한다. 또한 간행기록 중에 두 곳을 왕래하며 실무를 조정한 업무를 하던 “往者”⁷⁷⁾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의 사찰에서 어떤 방식이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산 윤정사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소』에는 “康熙八年己酉(1669)四月日造成”⁷⁸⁾이라는 인경 목서가 있다. 그렇다면 목판은 현종 10년(1669)까지는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⁷⁹⁾ 18세기 중기에 사찰이 재해로 폐사되면서,⁸⁰⁾ 목판 역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복사본은 귀진사본의 번각본이기는 하나 고유한 특징도 있다. 곧 대부분은 네 둘레가 단편이며, 난외 시주자 이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상하흑구가 없으며, 어미는 1-2엽 화문어미가 있기도 하나 대개는 상하내향흑어미이다.

74) 용복사본에는 각수를 刊字, 刊司, 刊刻, 刊, 刊手, 刻字, 鉸字, 自刻, 刊刻, 刊工 등 다양하게 일컫고 있다. 또 자신이 해당 권을 모두 판각한 경우에는 獨刻, 獨刊, 自刊 등이라고 하였고, 혹 두 권을 혼자서 판각하면 刊二라고 하였다.

75) 이 중에서 3회 이상 이름을 남기고 있는 각수는 戒能, 靈什, 靈浩(靈湖), 妙安, 密英, 密玄, 法尙(法相), 性甘, 性浩(性湖), 印器(印己, 印機), 祖云, 處俊(處准), 忠益(冲益), 學罔, 學修, 學衍, 學日(學一), 弘信 등이다.

76) 彦機, “經板後跋”, 『鞭羊堂集』 권2(용복사, 1647). “其板購與食償之, 功半出於己, 譬方其事也. 四方之工, 不召而至, 擇其鑿手第一者, 三十人不拘豐歉. 不廢寒暑, 期至五六年而終, 未聞以朝夕, 不足輟其役一日也. 事成大演慶席, 而禪教諸書, 試印若干件, 以施其與會者, 有餘則分布諸山. 將欲使, 有目皆覩, 有耳皆聞, 因于見聞, 以入如來妙裝嚴域, 然則竺乾之風光. 至今日, 更發於海東之春矣.”

77) 권38 말미.

비슷한 시기에 용복사에서 간행된 『선문염송집』에는 “往來人” 또는 “來往”, 『천지명양수륙잡문』에도 “내왕”이라는 직책이 보인다.

78)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남 아산 윤정사 154.

79) 범주사 소장본 표지에도 “丙戌春季月日”과 같은 목서가 있으나 병술년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해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북 보은 범주사 254).

80)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연구』 63집(2015. 9), 124.

3.4 송광사본⁸¹⁾

용복사에서 간행을 끝낸 지 2년여 뒤인 1633년 8월부터 1635년 5월에 걸쳐 전라도 송광사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소』를 간행하였다. 그런데 귀진사본은 근 8년, 용복사본은 3년 5개월에 완성된 데 비해 송광사본은 불과 2년을 지나지 않아 전권이 간행되었다. 권33의 권말기록에는 당시 한 권을 간행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⁸²⁾ 그렇다면 120권을 간행하는 데는 약 2년이 소요되므로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번각을 한테다 인근의 사찰과 분담 판각을 하였기 때문이었다.⁸³⁾

송광사본은 귀진사본을 번각하였는데, 이러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곧 권4, 권22, 권25, 권99의 마지막 장은 귀진사본을 그대로 번각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더욱이 <사진1>에서 보듯이 권14의 간기면은 “嘉慶三十六年(1557)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과 같이 귀진사의 원간기를 그대로 번각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사진 1> 권14 간기면 번각 실수사례(좌: 송광사목판 반전, 우: 동국대 소장본)

81) 보물 제1909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2016.9.1지정)

82) 권33 권말. “崇禎七年(1634)甲戌, 二月念五日始役, 四月念六日終.”

83) 권12의 권말간기에도 “崇禎八年乙亥(1635)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과 같이 중간본임을 밝혀 놓았다.

분담 판각사실은 “권4-6, 권28-33 등 9권은 寶城의 開興寺의 一浩가 간행하였다.”⁸⁴⁾는 권33의 간행기록과 권44, 47의 “대경 44권 1척과 『십지론』 31권 등 75권을 경상도 昆陽의 栖鳳寺에서 개간하여 송광사에 옮겨 두었다.”⁸⁵⁾는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대경이란 『화엄경』, 일척이란 단면 판각본을 일컫는다. 이렇게 송광사본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보성의 개흥사와 곤양의 서봉사 등에서 판각을 분담하여 완성된 것이다.

송광사본은 대부분의 목판 대부분이 현전하는데다 전본도 비교적 많다. 이들을 통해 간행기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송광사본은 1633년 8월 이전에 시작하여 1635년 5월에 는 완성을 보았다.

<표 3> 송광사본의 간기⁸⁶⁾

권수	간기	간행연월
2	崇禎八年四月 日戒眞印	1635.4
10	崇禎八年乙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12	崇禎八年乙亥三月日 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重刊	1635.3
14	嘉靖三十六年丁巳七月 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歸進寺開板 ⁸⁷⁾	1557.7 귀진사 원간기
21	崇禎八年乙亥四月日全羅道順天松廣寺開板	1635.4
24	崇禎七年甲戌四月日從	1634.4
26	曹溪山松廣寺開板	
33	崇禎七年甲戌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1634.4
36	崇禎八年乙亥月日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44	崇禎七年甲戌七月日	1634.7
47	崇禎七年甲戌七月日	1634.7
50	崇禎七季甲戌十二月日全羅道順天松廣寺刊板	1634.12
72	崇禎八年乙亥三月日 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	1635.3
73	崇禎八年乙亥三月日全羅道順天府曹溪山松廣寺	1635.3
78	崇禎八年乙亥月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
85	崇禎八年乙亥四月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5.4
118	崇禎八年五月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	1635.5
120	崇禎六年癸酉仲秋日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1633.8

84) 권33 권말. “全羅道順天地, 曹溪山松廣寺, 始造華嚴八十卷內, 四卷五卷六卷二十八卷二十九卷三十卷三十一卷三十二卷三十三卷, 移到寶城地五峯山開興寺, 山人一浩刊. 崇禎七年甲戌二月念五日始役四月念六日終.”

85) 권44 권말. “崇禎七年甲戌七月日, 大經四十三板一雙, 又十地論三十一板, 都計七十五板, 慶尙道[昆]陽郡栖鳳寺開刊, 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 留轉于松廣寺.”

卷47 卷尾. “大經四十三板一雙, 又十地論三十[一]板, 都計七十五板, 慶尙道昆陽栖鳳寺開刊, 移來全羅道順天府曹溪山, 留轉于松廣寺. 時崇禎七年甲戌七月日.”

86) 인본과 목판 그리고 목록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87) 상하어미는 차이가 있는데, 귀진사본은 흑어미이나 송광사본은 3엽화문어미.

한편 마지막 권120이 그 중에서 먼저 판각된 권24와 권33보다 무려 8개월이나 앞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이 약간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는 등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권120을 완성한 날은 소원을 기원하는 중추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아마 전체를 간행하겠다는 뜻을 기원하며 마지막 권을 먼저 간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간행을 주도한 인물은 전팔도도총섭 국일도대선사 覺性(1575~1660)을 비롯하여 선종도대선사 性玄, 전충청총섭 도대선사 太能, 도대선사인 熙玉·戒薰, 대선사 太湖 등이었고, 幹善은 선종 대선사 敬崙, 法欽, 彥弘, 天浩, 弘俊, 李春發, 車億 양주, 金銀(恩)澤 양주 등이었다. 각수는 敬洽, 淡敏, 淡元, 淡正(湛淨), 大僅, 明淨, 卯玄, 文信, 文彥, 善益, 善仁, 善和, 性玄, 信悟, 信哲, 双玉, 如敏, 灵彦, 灵印, 元一(日), 應玄, 儀雲, 印英, 印玄, 一岩(菴), 一旭, 宗戒, 俊明, 哲崙, 淸信, 太祥, 學倫, 學修, 學淳, 學軒, 玄悟, 玄玉, 玄竺, 弘彦과 청신거사 鄭貴男 등이었다. 이외에도 변상도 판각은 日旭, 연판은 道英, 法淡, 思哲, 印修, 天崙 등, 교정은 性眼(安), 性玄, 淳玉, 弘彦 등이 맡았다.

현재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2,347판은 송광사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판은 양면이 판각되어 있으나 혹 한 면에만 판각된 것도 있어서 간행 당시의 목판 수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조사를 담당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현재 약 100판 가량의 결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⁸⁾

송광사본 역시 귀진사본의 번각본이기는 하나 고유한 특징도 있다. 끝 네 둘레가 단변과 쌍변이 혼재하고, 난외에 시주자 이름이 있는데다 권말 시주질 등은 음각된 곳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와 1-3엽 화문어미가 혼재하며, 상하흑구의 有無도 일정하지가 않다. 이와 같이 송광사본은 단기간에 완성된 탓인지 판식의 定型이 일정하지 않고, 판각의 精緻度도 용복사본에 비해 떨어진다.

3.5 기타

3.5.1 영각사본

靈覺寺本은 숙종 12년(1686) 5월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본이 드물고 수량도 적다. 공개된 기관의 소장본 중에는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3책,⁸⁹⁾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3책이 보인다.⁹⁰⁾ 그 중 권16과 권20의 말미에 남아 있는 기록에는 1686년 5월에 宗和비구가 자신의 재산을 회사하여

88) 『한국의 사찰문화재: 2104전국사찰목록판 일제조사』, 전라남도2(송광사)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68-483.

89) “共六十”이라는 전체 책수 표시가 있고, 권15-16, 권19-20가 각각 1책으로 장책된 것으로 보아 처음 120권 60책으로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0) 제3책(권5-6), 제51책(권101-102), 제52책(권113-114).

완성한 것이라고 하였다.⁹¹⁾ 이어 經袱시주, 燈燭시주에 이어 證明, 持殿, 公양주, 別座, 持任, 印畫, 三剛에 해당되는 승려명단이 있다. 그 아래에는 “鍊靈海”, “刊善湛”과 같이 연판과 판각담당자를 각 1명씩 밝혀 놓았다.⁹²⁾ 이 사실만 보면 이 판본은 1686년 5월에 중화스님의 주도로 영각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영각사본을 송광사본과 대비하면, 간혹 새롭게 보완된 판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송광사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영각사의 참여사실을 새로 새겨 권미에 덧붙여 놓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영각사본은 송광사본의 보완판이며 독자적인 판본이 아니다. 혹 영각사본 중에는 송광사본에 없는 난외의 시주자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시주자 이름만을 별도로 판각하여 송광사본에다 찍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판과 판각에 각 1인만이 참여한 기록으로 볼 때도 전체를 간행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영각사에 『화엄경』 목판을 수장한 기록이 있다. 곧 栢庵和尚 性聰(1631~1700)이 교합한 80권 『화엄경』 목판이 영조 46년(1770)에 澄光寺에서 불타버리자 雪坡 尙彦(1707~1791)이 1775년에 다시 완성하여 영각사에 두었다는 것이다.⁹³⁾ 이 『화엄경』이란 정관이 찬술한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鈔』⁹⁴⁾를 말하는 것으로 정원이 주석한 『대방광불화엄경소』와는 다른 것이며, 시기도 근 한 세기나 늦는 등 전혀 무관한 기록이다.

3.5.2 운부사본

雲浮寺本은 영각사본과 같이 숙종 12년(1686) 5월에 팔공산 운부사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운부사본도 영각사본과 마찬가지로 전본이 매우 드물다. 공개된 기관의 소장본으로는 영천 은혜사⁹⁵⁾와 대구 동화사에 소장된 권101-102이 보인다.⁹⁶⁾ 이 권의 말미에는 <사진 2>와 같이 연월, 지역과 사찰명이 있고, 이어 인경대시주, 시주, 장실, 수좌, 간선, 공유, 인화 등 이 사업에 참여한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기록은 간행보다는 인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운부사본

91) 권16, 20의 권말. “康熙二十五年丙寅五月日, 慶尙道安陰縣西嶺, 德有山靈覺寺, 禪德宗和比丘, 臘高年深, 自捨己財, 以種無漏之果壽等, 崑崙福全彌盧, 畢竟往生極樂.”

92) 이 장은 판심을 새기지 않고 좌우 면에 간행 연유와 참여인물들만을 새겨 놓아 다른 장과는 판식이 확연하게 다르며, 당시 별도로 새긴 목판임이 확인이 된다.

93) 有一, 『蓮潭大師林下錄』 권3. “重刊華嚴經序”, “惟今所書, 雪坡大師, 重刊始終也. 昔在康熙己巳(1689), 栢庵和尚(1631~1700), 初刊於澄光寺, 印布不絕, 至于今八十餘年. 曩於庚寅冬板閣災, 八十卷板子, 盡爲灰飛…以甲午(1774)春董役, 越明年乙未(1775)夏竣功, 建閣于靈覺寺, 以藏之.”

94) 『大方廣佛華嚴經疏序演義鈔』(澄光寺, 1775). “重刊華嚴經後序”, “昔在康熙己巳, 栢庵和尚, 初刊澄光寺, 印布不絕, 至于今八十餘年. 曩於庚寅冬板閣災, 八十卷板子, 盡爲灰飛…以甲午春董役, 越明年乙未夏竣功, 建閣靈覺寺, 以藏之…建隆乙未(1775)七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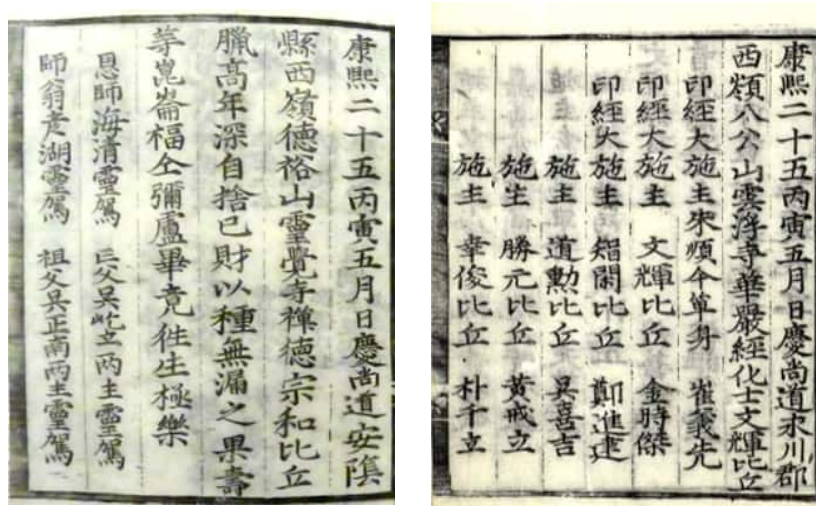
95)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1(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213.

은혜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 중에서 26책은 운부사 후간기가 있으나 원간기는 송광사본이라고 소개해 놓았다.

96)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Home/Search>).

역시 영각사본과 마찬가지로 송광사본의 결판을 보완하고, 운부사의 참여사실을 권미에 덧붙여 완성한 판본이다. 그러므로 운부사본 역시 송광사본의 보완판이며 독자적인 판본이 아니다.

더욱이 영각사본 권16과 운부사본 권102의 권미에 있는 간행사실은 모두 “康熙二十五丙寅(1686)五月日慶尙道”로 시작된다. 이렇게 두 판본은 간행기록과 형식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영각사와 운부사가 함께 송광사본의 결판을 보완하고 인출하면서, 그 사실을 각 사찰이 별도로 판각하여 권미에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두 판본이 더 발견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2> 영각사본 권16 권미(좌)와 운부사본 권102 권미(우)⁹⁷⁾

3.5.3 한글사경

『대방광불화엄경소』는 18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귀진사본과 송광사본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대에 궁인들이 『대방광불화엄경소』를 한글 궁서체로 사성한 일이 있었다. 매우 특이한 사례이므로 간본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 개략을 소개한다.

한글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현재 모두 38권39책으로 전한다.⁹⁸⁾ 분홍색 냉전지로 보이는 제침의 제목은 『화엄경』이지만 『대방광불화엄경소』를 한글로 음독하고 현토를 해놓은 것이다. 모든 권을 사성한 것은 아니고 권7의 세주묘엄품(세주묘엄품)에서 권114의 입법계품에 이르기까지 주요

97) 영각사본은 김천 직지사 소장본, 운부사본은 대구 동화사 소장본(운부사본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사진임)으로 두 사찰이 각각 판각한 것임.

98)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언해』(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2012.3.26.). 제26책은 상하책으로 분책되어 2책임.

한 부분을 선별해 놓았다.⁹⁹⁾ 이러한 형식으로 보아 이 한글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12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소』의 편성체제를 따르되, 『화엄경』의 品名을 권두에 제시해 줌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꾀한 것 같다.

권수제는 『대방광불화엄경소』, 한 면은 8행18자 내외이다. 각 책의 권미에는 “대한광무팔년(1904) 갑진칠월 일”, “광무팔년갑진칠월 일”, “대한광무팔년칠월일등서” 등과 같이 書寫한 시기를 적어 놓았는데, 모두 1904년 7월이다. 서체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것임은 분명하나 서사한 궁인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제27책 권미에는 “갑진칠월 일 명은서사”와 같이 서사자가 명은이라는 사실만이 밝혀져 있다.

마지막에는 “상축 태황제폐하 성공안강만세만세성수만세”와 같이 고종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이어 황태자전하, 태자비전하, 영친왕전하, 황귀비저하 등의 안녕과 수복을 기원하는 글이 있다. 또한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건무량수, 공성무상도”¹⁰⁰⁾라는 공덕계도 있다. 이어 “이 대승경전을 서사한 공덕으로 돌아가신 선황선후가 함께 극락에 가기를 크게 바란다.”는 원문과 “이 경을 독송하면 무량복덕과 무량공덕을 생전과 사후에 받는다고 하니 주야로 독송하시옵소서”라고 적어 놓았다. 이와 같이 이 한글사경은 국왕과 왕비들의 극락왕생, 왕실의 평안과 수복 축원 그리고 자신들이 死後에 복덕과 공덕을 받기 위하여 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결 언

고려 선종 때 대각국사 의천의 요청으로 수입된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은 조선 세종 때 일본이 대장경판을 구청하자 그 대체품으로 사급하였다. 그러나 이 『대방광불화엄경소』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있었으므로 목판을 사급한 지 근 20년이 지나 120권 모두를 간행하게 된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강석덕의 “화엄경발”에 수록되어 있다. 명종 때는 보우의 주도로 귀진사에서 간행하였고, 용복사와 송광사에서도 귀진사본을 번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렇게 용복사와 송광사에서는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하지 않고 귀진사본을 번각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일한 판본으로 착오하게 된다. 실제 세 판본은 간기가 없는 잔본일 경우에는 서로 섞여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선의 첫 판본인 청계사본부터 귀진사본, 용복사본, 송광사본 등의 간행경위와 특징에 대해 살폈다. 그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세종 때 신호창의 사망으로 중단된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은 삼한국대부인 안씨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와 공주들의 萬歲와 무성을 기원하기 위하여 세종 26년(1444) 이전에 완성하

99) 제1책(권7 제주묘엄품)은 『대방광불화엄경』(80권본)의 권2 世主妙嚴品 제1의2에 해당함.

100) 원컨대 이 공덕이 일체에 미쳐서 우리와 중생들이 마땅히 극락국에 태어나 함께 무량수불을 뵈고 함께 깨달음을 이룰지어다.

게 된다. 이 일을 주도한 인물들은 왕실의 외척과 왕자 공주들이었고, 주관한 승려는 청계사주지인 각돈이었다. 당시 완성한 1470권의 목판은 “雜華”라는 편액이 붙은 판당에 수장되었다. 그런데 청계사본은 수입목판본을 번각하면서 목판의 양면에 판각함으로써 목판 수는 수입목판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근자에 수덕사 소조여래좌상 복장에서 발견되어 공개된 6권2책은 바로 청계사본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이후 귀진사에서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의 번각대본이 되었다.

둘째, 귀진사본은 1556년 6월 이전부터 1564년 3월까지 근 8년에 걸쳐 선종과 교종의 수장인 普雨와 天則의 주관아래 많은 고승들이 참여함으로써 간행을 보게 되었다. 이때 간선은 釋熙, 日漚(一漚), 處安, 釋珪(釋圭) 등이었고, 각수는 守衍, 祖英 등 30-40명이 참여하였는데, 인근의 월출암과 성불사 승려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목판의 일부는 현재 묘향산 보현사 보존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본은 청계사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선장본을 고려하여 판심을 만드는 등 새로운 형식으로 번각하였다. 판각기법이 비교적 精緻하다는 점에서 후대본과는 차이가 있다.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 흑구는 일부 권을 제외하면 상하에 모두 있다. 그리고 네 들레가 단변인 것도 있기는 하나 대개는 쌍변이며, 난외에 시주자 이름이 있다.

셋째, 용복사본은 간선을 맡은 惠淳의 주도아래 1628년 8월부터 1631년 12월에 걸쳐 귀진사본을 번각한 판본이다. 각수는 忠益(冲益), 密英 등 30-40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아침저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 그래서 야간에 실무 또는 지원업무를 하는 “勞夜匠”이라는 직책까지 있었다. 목판은 현종 10년(1669)까지는 보존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18세기 중기에 사찰의 폐사와 함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복사본은 귀진사본의 번각이기는 하나 고유한 특징도 있다. 곧 대부분은 네 들레가 단변이며, 난외 시주자 이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하흑구는 거의 없으며, 어미는 1-2엽 화문어미가 있기도 하나 대개는 상하내향흑어미이다.

넷째, 현재 송광사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는 2,347권의 송광사본은 국일도대선사 覺性의 주도로 1633년부터 1635년 5월에 걸쳐 귀진사본을 번각한 판본이다. 간선은 선종대선사 敬嘗, 法欽 등, 각수는 敬洽, 淡敏 등 40여명, 교정은 性眼(安), 性玄 등이 맡았다. 마지막 120권을 가장 이른 1633년 중추일에 간행한 것은 전체를 완간하겠다는 기원적인 의미였을 것이다.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아 모두를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寶城의 開興寺, 昆陽의 栖鳳寺 등 다른 사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완성하다보니 번각 대본인 귀진사본의 간기나 시주질을 그대로 판각하는 등 정밀하지 못하고, 판각술 역시 용복사본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이 판본의 특징은 네 들레가 단변과 쌍변이 혼재하고, 난외에 시주자 이름이 있는데다 권말 시주질 등은 음각된 곳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미와 상하흑구의 有無도 일정하지 않는 등 판식의 定型이 일정하지 않고, 판각의 精緻度도 열등하다.

다섯째, 영각사본, 운부사본은 모두 숙종 12년(1686) 5월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판본이다. 그러나 이 두 사찰의 잔본을 송광사본과 대조한 결과, 송광사 결판을 보완하고 권미에 각 사찰의 간행사실을 덧붙여 인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자적인 판본이 아니라 송광사본의 보완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인본이 공개된다면 간행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조선 후기에 와서는 120권의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대인 1904년 7월에 궁인들이 한글 공서체로 『대방광불화엄경소』를 사성한 일이 있었다. 이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모두 38권39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방광불화엄경』의 주요 내용을 초출하여 한글로 음독하고 현토를 달아 놓았다. 또한 12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소』의 편성을 따르되 品名을 권두에 제시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사성 목적은 국왕과 왕비들의 극락왕생, 왕실의 평안과 수복 축원 그리고 자신들이 死後에 복덕과 공덕을 받기 위함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봉화상선요』(삭령: 용복사, 1628), 『단종실록』, 『대방광불화엄경소』(귀진사, 용복사, 송광사, 영각사, 운부사본), 『동문선』(권103), 『대방광불화엄경소초』(징광사, 1775), 『동파주의』(권6, 8), 『용감수감』(서흥: 귀진사, 1563), 『불조삼경』(평양: 평양부, 1550), 『서흥지』(서흥부, [1828]), 『세종실록』, 『신편제종교장총록』, 『연담대사임하록』([영암]: [미황사], [1799]), 『태종실록』, 『편양당집』(삭령: 용복사, 1647), 『한글본 대방광불화엄경소(화엄경언해)』(1904).

[단행본]

강준흠. 『삼명시집』. 사본, [1833년 이후].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리기웅; 변룡문; 김수용]. 『귀진사』.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2009.
문명대. 『지장암』. 서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9.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록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천혜봉. 『고려대장경과 교장의 연구』. 서울: 범우, 2012.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최남선(백운향도). 『심춘순례』(邊山의 四大寺). 경성: 백운사, 1926.
황해도교육회 편. 『황해도향토지』. 경성: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본부, 1937.
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京都: 便利堂, 1937.
『북한문화재해설집2: 사찰 건축편』.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정보문화재: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학술대회』. 2018.11.3.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2013)』. 대전 서울: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

구소, 2013-2017.

『여지도서』하(『한국사료총서』 제20집).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9.

『전국사찰목록판 일제조사: 2014』: 제4책(송광사), 2015.

『相國寺史料編年集成』: 同志社大學 歴史資料館館報 第15号.

『洪武南藏』: 第223-229册. 彭州: 四川省佛教協會, 1999.

[논문]

강현찬. “조선 후기 『화엄경소초』의 관각과 화엄학의 성행.”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5.

남권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초조대장경과 대방광불화엄경소.” 『한국학논집』 제37집(2008). 35-63.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진언집과 불교의식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연구』 63집(2015. 9). 119-148.

오용섭. “교장의 간행방식과 망실.” 『서지학연구』 제54집(2013. 6). 137-165.

정각. “수덕사 소조(塑造) 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 『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정보문화재: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학술대회』 (2018. 11. 3).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465-495.

이지범. “대장경전이 있었던 귀진사.” 『여성불교』(1978. 3). 46-48.

최영호. “해인사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의 관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제4호(1997. 8). 132-163.

황인규. “청계산 청계사의 역사와 위상: 고려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39집(2013. 2). 254-295.

황인규. “한국불교사의 순교승.” 『불교평론』 제10권 제1호(통권 제34호, 2008봄). 198-216.

釋法幢. “宋代賢首中興教主淨源之生平探討-兼談大覺國師義天與慧因高麗寺.” 『全國佛學論文聯合發表會論文集』 第20屆(2009).

陳景富. “義天入宋求法活動及其弘法業績.” 『天台學研究』 2輯(2000).

盧在性. “華嚴經疏抄의 韓國流傳について.” 『宗教研究』 65卷4輯:291號(1992).

[전자정보원]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대정신수대장경』 <<http://21dzk.l.u-tokyo.ac.jp/SAT>>.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Home/Search>>.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직지정보박물관』 <<http://www.jikjisa.or.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mainIndexIframe.jsp>>.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학자료포털』 <<http://www.kostma.net>>.